

죽음 준비를 위한 세 의사들의 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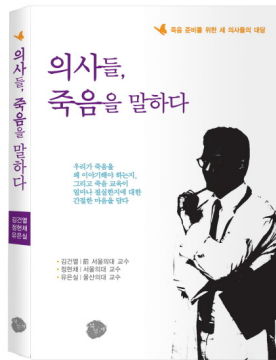
김재명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Three Doctors Discussion about Preparing for Death

Jae-Myung Kim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저서: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
 저자: 김건열, 정현채, 유은실
 출판사: 북성재
 출판연도: 2014년
 쪽수: 288쪽

죽음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죽음에 대한 이론서를 통해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 ‘죽음학’ 혹은 ‘생사학’의 이름으로 이러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학(學)’은 어렵다. 누구나 죽음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경험담을 말할 수 없기에 죽음은 그렇게 학문적이기 어렵다. 그런 죽음에 대해 세 명의 의사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국내 최초로 사전의료의향서를 기초한 전(前)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학 김건열 교수, 230여 회의 죽음학 강연을 해오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현채 교수, 역시 활발하게 죽음학 강의를 열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유은실 교수가 그들이다. 이들이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과 숙고를 논문이 아닌 이야기로 풀었다. 그래서 쉽게 읽히지만 대화의 깊이는 논문의 무게를 더하고도 남는다.

대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첫 번째는 ‘의료현장의 죽음에 대하여’이다. 의료분쟁, 연명치료와 자연사, 안락사 및 존엄사,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등 죽음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각종 이슈들을 다룬다. 여러 주제들이 다소 간략하게 서로 얽혀 거론되지만, 경험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오히려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대담에서

스쳐 지나갔던 용어나 개념(안락사, 호스피스 등)에 대한 정보가 참고자료형식으로 틈틈이 제공되어 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대담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다. 이른바 ‘근사 체험(near-death experience)’을 중심으로 한 ‘죽음의 순간에 대하여’를 다룬다. 주로 정현채 교수의 주도로 대담이 전개되는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Raymond A. Moody, JR)가 쓴 『다시 산다는 것』(*Life after life, 1975*), 영국의 신경과 의사인 피터 펜윅(Peter Fenwick) 박사의 『죽음의 기술』(*The art of dying, 2008*)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미권의 연구성과가 소개된다.

세 번째는 근사체험보다 훨씬 논쟁적인 주제인데, ‘사후세계에 대하여’를 다룬다. 역시 정현채 교수 주도로 진행되면서, ‘의식의 제외이탈’을 비롯한 ‘사후세계의 체험,’ ‘에너지와 윤회’와 더불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대화가 이어진다. 정현채 교수는 이 주제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사후세계나 에너지 그리고 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다 그대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 달라질 것”이라 강조한다 (179쪽). 즉 죽음 담론이 갖는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마지막 대답은 ‘죽음을 알게 됨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러한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다룬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이와 관련된 법, 죽음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 이웃나라들의 죽음준비교육 등 이른바 ‘죽음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두루두루 간략하게 다룬다. 그런데 대답자들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의사들을 위한 죽음 교육’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건열 전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대 과학은 크나 큰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고, 질병을 관리하는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의학교육이 치료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관리(돌봄) 중심의 의학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한다. 따라서 “죽음도 치료해야 하는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의사들에 대한 죽음교육이 요청된다는 것이다(210-211쪽).

이 책의 장점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쉽게 읽히도록 다룬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대답이 풍부한 의료현장 경험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 오랜 세월 숙고한 세 의사의 진솔한 대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사체험과 사후세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소 주의 깊은 독해가 요청된다.

정현재 교수를 중심으로 대답자들은 대체로 근사체험과 사후세계의 ‘실재성’을 전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현재 교수는 말하기를, “사후세계를 논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죽음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서”라고 하면서(140쪽), “근사체험이나, 임종자가 세상을 뜨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나 가족의 마중을 받는 삶의 종말 체험을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다”고 주장한다(155쪽). 즉 근사체험자들이나 임종자들이 죽음 직전에 증언한 것에 의하면 사후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 자체와 그 증언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과학적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적할 것은 대답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칫 근사체험과 사후세계의 실재를 인정하고 전제해야만 제대로 된 죽음교육이 가능하리라는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근사체험과 사후세계는 계속 열어두고 논의해야할 영역이지 그것의 실재성을 전제하면서 믿음을 강제할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죽음교육적 효과에 주목한 나머지 근사체험과 사후세계의 실재성을 전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부르디외(Bourdieu)가 말한 일종의 ‘상징폭력(symbolic violence)’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지라도 말이다. 게다가 이러한 전제는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적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자신들만의 신과 신앙이 절대적이고 다른 신념과 몸짓들은 모두 우상(偶像)이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강변했던 종교적 배타성이 이 경우에는 ‘과학의 이름으로’ 재현되면서 이러한 태도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 현상’의 하나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이 사후세계에 대한 대답자들의 입장이 틀렸거나 거짓이라거나 망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이 책에서는 그 반대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의 쏠림현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보다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실상 이것은 대답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대답에서 줄곧 사회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유은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의식에 관한 내용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려면 정신, 의식, 영혼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은 일차적으로 자연과학의 하나인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교, 철학, 심리학 분야에서 죽음과 관련된 담론을 폭넓게 다룰 수 있는 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125쪽)

이 책의 표지에는 ‘우리가 죽음을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다’라는 소개 문구가 적혀 있다. 근사체험과 사후세계와 관련한 대목에서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대답 곳곳에서 저자들의 이러한 ‘절절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일반인을 비롯하여 특히 의사 및 의과대학생들에게 죽음교육을 위한 입문서로 모자람 없이 적극 추천할 만하다.